

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2년 1월 17일(월) 14:00~16:00
- ◎ 회의장소 본관 4층 소회의실
- ◎ 참석위원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정희진(학교법인 차장)
이강오(학생문화처장)
이재승(기획예산팀장)
송서희(학부총학생회장)
유수경(대학원총학생회장)
박철훈(학부총학생회집행부장)
김창배(전국퇴직금융인협회장)
- ◎ 불참위원 민정우(주간MBA원우회장)
- ◎ 배석 이성희(기획예산팀 차장)
오서준(간사, 기획예산팀 과장)

[안건]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2022학년도 본예산,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1. 안건 내용

1)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증감률
교비회계*	173,129	9,162	182,291	5.29%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

2) 2022학년도 본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액
세입*	110,712	62,362	173,074	-55
세출**	110,712	62,362	173,074	-55

* 세입: 등록금, 수강료,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부채, 전기이월자금

** 세출: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예비비, 자산/부채

3) 잉여금 처리 원칙

① 잉여금의 정의

-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에 한함

② 잉여금의 처리 원칙(안)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2. 회의 내용

1) 2021회계 추가경정예산 관련

① 등록금 수입 추경

외부전문가위원 2021회계 등록금 수입 추경이 22억 정도인데, 어떻게 등록금이 증가했고 이와 연관된 지출 증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21회계 본예산보다 수입 추경이 90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본예산 편성시 제대로 된 것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수입 추경은 대학원 총원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지출 면에서 강사, 공간, 시설 등의 직접비용과 교내 우선순위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본예산은 예측 측면이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편성과 다르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2020회계 대비 추경의 비율은 줄어들었음. 또한 이번엔 수입이 더 발생되어 진행한 추경임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대학원 학생이 증가했음. 즉 총원율이 증가했으며, 요즘 인기 있는 정보통신대학원 정원을 늘렸던 이유도 있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총원을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국고나 입시수입 등과 달리 대학원등록금은 학교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로 인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육인프라(강의실 시설/환경 개선, LED로 교체, 서버 투자, 랩실 확보 등)에도 투자하고 교내장학금에도 배정하였음을 설명함

2) 2022회계 본예산 관련

① 직원 인건비 감소

외부전문가위원 직원 인건비 감소 관련하여,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더 증가하는 것 아닌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고임금 퇴직자가 저임금 신입직원으로 대체되면서 호봉차에 의한 인건비 감소 요인이 발생. 명예퇴직금은 명퇴기금으로 배정하며 기금이 없으면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음. 또한 이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라 추경으로 검토할 대상임을 답변함

교직원위원(법인) 학교 인건비 감축을 위해 법인도 명퇴기금에 1억원 지원했음을 설명함

② 현리인성교육원 관리운영비 증가

학생위원 본예산 지출 증가 요인에 현리인성교육원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 증가분이 발생하는지. 지출 증가라는 것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위드코로나 기준 성찰과성장 과정의 대면 운영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분임. 현리인성교육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금도 비용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에 사용을 한다면 사용에 따른 직접비용이 당연히 추가되게 됨. 인성교육센터에서는 2022회계에 교육원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에도 반영이 필요함을 설명함

③ 전기이월금 관련

외부전문가위원 전기이월금 관련해서 이월금이란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음 회계로 이월 시키는 것 아닌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우리 학교의 경우 학교 재정상 사업 후 남은 돈을 이월하지 않음. 다만 연구비의 경우 연구기간을 3~5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비 잔액은 이월을 시킴. 즉 전기 이월금의 대부분은 미집행 연구비의 이월을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함

④ 법정부담전입금 및 경상비전입금

학생위원 법정부담전입금과 경상비전입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교원의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법정부담전입금이라고 함. 그 외 학교의 사업지원을 위한 전입금이 경상비전입금임을 답변함

⑤ 논문심사로 예산

학생위원 세출 예산에서 논문심사료가 5천만원 증가하였는데, 논문심사로 예산이 왜 증가하는지와,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논문심사가 실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논문심사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논문심사료의 단가는 동결이지만 심사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된 것임. 또한 논문은 학점을 주지 않으며 논문에 관한 부분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논문학기에는 등록금이 감소함. 아울러 논문심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 본교의 경우 타 대학보다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음. 타 대학의 경우 4학기 수료 후 졸업시까지 계속 연구등록이 의무이나, 우리 대학은 현재 논문 학기에만 논문등록을 하고 졸업할 수 있는 점 등 본교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⑥ 수월성 등 학교 평가지표 관련

학생위원 수월성 관련해서 수월성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함

외부전문가위원 중앙일보 대학 평가 같은 경우 매우 실망스러움. 교원의 급여가 늘지 않으니 연구실적도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함

교직원위원 산단전입금이나 연구기금 등으로 연구수월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평가지표 중 교육여건지표는 의대가 없는 중소규모 학교인 우리 대학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음. 의대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전임교원인 관계로 교원확보율과 이와 연관된 지표들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음. 우리 대학은 이 부분에서 부족한 면을 연구 등 다른 지표 값을 향상시켜서 메워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함

교직원위원 대학을 '아웃풋'으로 평가하거나 '인풋대비 아웃풋'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현재 평가기관 등에서는 '인풋'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매우 불리함. 그렇지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시킬 수 있도록 계획 중임을 설명함

⑦ 기부금 예산 관련

학생위원 기부금 관련해서 매년 예산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매년 실적과 다르게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보니 실제로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장학기관의 장학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모금에 의한 기부금 수입예산이 75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 대학이 평균적으로 모금해오던 연 60억원 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물론 최근 몇 년간은 실적이 낮았지만, 신임 총장님의 여러 활동과 2022년 모금캠페인/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임을 설명함

⑧ 법인전입금 문제

학생위원 법인전입금 비율이 0.3%인데, 0.4% 미만이면 각종 평가지표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서울 주요대학 중에서도 낮은 수치임. 비율을 더 높여야 학생들이 보기에 법인이 법인책무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임을 설명함

학생위원 학생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법인전입금 부분임. 법인전입금의 경우 수익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몇 년간 보아온 결과 법인에서 얘기하는 대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법인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계획 중이고, 어떤 개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법인) 현재 법인전입금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재투자로 2억원 정도 추가 수익 예상되고 노후빌라를 상가로 리모델링해서 2억원 정도 수익 확보할 계획임. 재단의 재정규모보다 학교에 더 전입을 해왔던 관계로 투자에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법인의 신임 보직자분들이 노력 중임을 설명함

- 학생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이고, 사업이 실제 이뤄져 성과를 내는 것은 없는 상황임.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전입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문의함
- 교직원위원(법인) 4억 정도 추가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답변함
- 외부전문가위원 1년 법정부담전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함
- 교직원위원(법인) 2021회계 4억 6천 7백만원 정도이며, 2022회계 5억원 정도임. 그 다음 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함
- 외부전문가위원 지난번 5년치 약속한 스케줄에 미달하고 있음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법인)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전입금을 증가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 재단의 성격상 기업이나 국립이 아닌 점, 그리고 교구를 가지지 않은 수도회라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제한된 상황임. 학교측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기부금, 특히 동문 기부금이 중요함. 기부자의 마음을 얻고 기부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함. 학교에서도 기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설명함.
- 외부전문가위원 동문들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임. 예전에 얘기 나왔던 법인 이사회 구성 문제도 동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이에 따른 동문들의 기부도 원활할 것으로 보임을 설명함

⑨ 학생들 의견 반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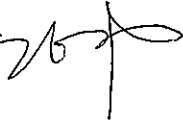
- 교직원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의견을 구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해주길 요청함
- 학생위원 적극 참여할 것을 답변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전원 동의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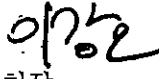
2022. 1. 19.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김길선 기획처장



(교직원위원)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학생위원)

송서희
학부총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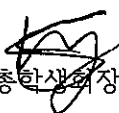
김창배
전국퇴직금융인협회장



이재승
기획예산팀장



유수경
대학원총학생회장



정희진
학교법인



박철훈
학부총학생회집행부장

